

베트남, 지방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승인권한 확대 예정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베트남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에 따르면, 2004년 1~10월 중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신규승인 약 17억 달러(579건), 추가투자(388건) 15억 달러로 총 32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임.
- 베트남 정부는 2004년에 7.6%의 GDP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8.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업생산의 36%, 총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최우선 요건이라고 밝힘.
- 특히 2006~2010년까지도 7.5~8%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총 200~250억 달러(ODA 프로젝트 100억 달러 포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총투자금액의 20%를 상회하는 수치임.

□ 지방정부 승인권한 확대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의 MPI나 지방정부가 승인하고 있음. 현재 500만 달러까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은 Hanoi, Ho Chi Minh City 등은 1,000만 달러까지 가능함.

- 최근 베트남 MPI 산하의 FIA(Foreign Investment Agency)는 외국
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승인권한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Hanoi, Ho Chi Minh City,
Haiphong, Danang의 경우 4,000만 달러, 기타 지방정부의 경우
2,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까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하부 위
임할 계획임.
- 지방정부의 승인권한을 확대한 배경은 외국인투자자가 중앙정부와
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기 투자금액을 축소하여 지방
정부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얻은 후 사후에 투자규모를 재조정하
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그룹A¹⁾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고속도로, 철로, 시멘트, 설탕,
알콜, 맥주, 담배, 야금, 전력, 자동차, 오토바이, 관광 등의 부문을
중전과 마찬가지로 금액에 관계없이 예외 사항으로 분류되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MPI는 향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과 관련한 권한
을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당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방침임.

□ 향후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서비스, 무역, 보험, 통신, 광고, 교육 등의 분야에 신
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철강, 시멘트, 전
력,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는 기존 외국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것
을 천명하고 있음.
- 최근 일본과의 투자협정 및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ASEM 정상회
의의 성공적 개최 등을 계기로 지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1) 그룹A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공단, 수출가공구, 항구, 석유가스, 신문, 보험, 국방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이는 총리의 허가사항임.

2005년말로 예정된 WTO 가입이 가시화되는 등 대내외 투자환경이 호전되고 있음.

- 지방정부로의 지속적인 권한위임과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도입 등 추가적인 노력이 지속되면 향후 외국인직접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전문연구원 고희원 (☎3779-6686)
E-mail : koheewon@koreaexim.go.kr